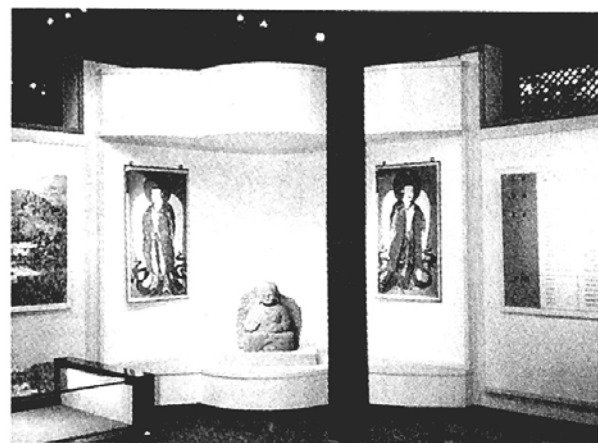


### 용주사·월정사등 13곳 전시관 추진 사격 맞게 지역특성도 고려해야 시청각교재등 활용 실행공간으로



◇현재 추진중인 성보전시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사찰의 사격에 걸맞는 특색있는 전시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불상과 불화를 중심으로 여법하게 꾸민 직지사 성보전시관.

# “테마 성보전시관 만들자”

조계종이 성보박물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 사찰의 사격(寺格)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테마별 전시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용주사 월정사 등 13개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성보전시관은 불교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관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개의 성보전시관은 전시목적이나 전시자료를 고려치 않은 채 성보의 나열에만 급급하다. 성보를 왜 전시하며, 무엇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라는 고민없이 성보의 보관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한집디자인연구소 김희태소장은 “일반인들에게 아직 불교는 생소한 부분도 있어 무경신앙과 동일시하는 그릇된 편견을 낫기도 한다”며 “각 사찰의 역사와 특성을 한눈에 보여주고 불교문화를 이해

시킬 수 있는 전시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대홍사가 그곳을 거쳐간 서산대사와 초의선사를 중심으로 전시관을 꾸며 호국불교와 차문화를 조명하고 있듯이 설계와 유물의 선정에서부터 각 사찰의 사격에 걸맞는 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모모종경을 소장하고 있는 용주사는 효(孝)를 주제로, 미륵도량으로 이름난 금산사는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기본방향 설정,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계획을 세운다면 문화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관람객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규모가 작거나 유물이 적은 사찰은 바루공양 등 스님들의 생활이나 영산재 등 불교의식자료 등을 전시하거나 강화 선원사의 경우 경관을 직접 찍을 수 있는 참

여프로그래를 개발, 일반인들이 불교를 좀더 손쉽게 이해하고 친숙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대의 박물관은 유물의 수집과 보관, 전시 외에 연구와 교육의 기능이 더해진다. 특히 사찰의 성보전시관은 이런 점 외에 예배와 생활의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포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내년 4월 개관될 통도사박물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화전문박물관으로 꾸미지는 통도사박물관은 거대한 과제를 완전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전시놀이·조명 등을 고려한 특별전시실을 여법하게 마련했으며, 4백여점의 불화를 2곳의 전시실에서 상설 전시하고 때론 기획전시회를 통해 불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윤기석 기자 (gsyoon@buddhapia.com)

## 불심시심 <137>

### 머리 돌려 멀리 하늘 보다

一牛城又一牛	우성으로 내려 온지 또 한 해
(일하우성우일연)	
峨嵋物色夢依然	아미산의 풍경은 꿈에만 아득
(아미물색몽의연)	
遙知象外鏡潭興	격 밖의 참선의 흥 아득히 알면서
(요지상외영담흥)	
肯念塵間重俗緣	티끌세상 무거운 속세인연 아쉬워하다
(금념진간중속연)	
林月光明春葉露	숲의 달 불 빛의 이슬 여기저기 비추고
(임월광명춘엽로)	
寺鐘寒夜暮山煙	절 종은 싸늘히 저녁 연기 타고 오네
(사종한야모산연)	
關河搖落舊懷抱	국경 저 멀리서 서글퍼하는 회포
(관하요락구회포)	
禪音難堪望遠天	머리 돌려 먼 하늘 바라보기도 힘겨워,
(교수난감망원천)	

허정(虛靜 1670~1738)대사의 ‘망향산(望香山)’이라 제한 시이다. 세속으로 내려 온 지 도 벌써 한 해가 지나서 스님 의 고향인 묘향산을 보며 지은 것이다. 그곳 산사의 모든 정경이 꿈에서만 아득하였던 것이다. 저 산사에는 불상을 벗어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터인데 지금 나는 이것을 그리 울만으로 간직하게 되었으니, 이는 세속의 인연을 어쩔 수 없이 중히 여기는 탓일까. 이 또한 인간 세사의 자연이니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시의 내용은 이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스님으로서의 세상을 벗어났다가 다시 세상을 긍정적으로 되돌리는 초월의 세간 긍정이다. 곧 부정의 부정이 긍정인 일상적 논리에도 어긋남이 없는 초연의 자세이다. 지금 묘향산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어울려 있을 풍경, 불이 되어 돌아나기 시작하는 초목의 화려함, 그 사이로 빛

## 성악가가 부른 찬불가

김진원씨등 13명 동참  
28곡 CD 2장에 담아  
성악가들의 합창에서도 탄력있고 정돈된 목소리를 타고 흘러나오는 찬불가를 듣는 맛은 마치 한편의 장엄한 드라마를 듣는 것처럼 무척이나 시원하면서도 감미롭다. 그러나 성악을 전공한 불자들이 악인들이 별로 없는 교계에서 성악가들이 만든 찬불가집을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노릇이다. IMF로 제대로 된 음악상 하나 열리기 힘든 요즘 국내 정상급 성악가 13명이 28곡의 찬불가를 2개의 CD에 담은 ‘불교사랑’을 펴내 화제다.



테너 김진원(현대오페라단장, 세종대 교수) 김진수(국제오페라단장) 박광원(연세대 강사) 서운재(한마음선원 합창단 지휘자), 바리톤 이영구, 임익선(영남대 강사), 소프라노 김학남, 정동희(한양대 교수) 김현숙(동아대 교수) 김금희(추계예술대 교수), 메조소프라노 심은숙(서울시립대 강사) 정미현(숭실대 강사), 베이스 김종진(강릉대 교수) 등. 이들은 박지성스님(철곡 도정암 주지)의 시에 김동환(중앙대 교수) 변규백 조용근 이철혁 이무영(한국종합예술대 교수) 이달철 박기섭씨 등과 김용호씨가 작곡한 ‘수행길’ ‘인연공덕’ ‘님의 모습’ ‘한마음’ ‘나의 연꽃’ 등 28곡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담았다. 김용호씨 작곡의에는 이번 CD를 위해 전 부 새로 작곡한 찬불가들이다. (gslee@buddhapia.com)

## 호암미술관 ‘조선 후기 국보전’ 진경예술 진면목 볼 기회

혼란한 시대상황속에서도 독특한 민족문화를 창출, 근·현대 우리 문화의 전통적 원류가 되고 있는 조선후기의 문화유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형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호암미술관이 10월11일까지 호암갤러리에서 여는 ‘조선 후기 국보전’은 95년 ‘대고려국보전’과 96년 ‘용유도원도와 조선전기 국보전’에 이어 위대한 문화유산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기획된 세 번째 전시. 경재 정선의 ‘금강전도(국보 217호)’ 등 국보 5건, 추사 김정희가 쓴 반야심경(보물 547-4호) 등 보물 9건을 포함 1백58건 2백53점의 유물을 전시, 찬란한 진경예술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문화는 유교를 바탕으로 불교, 도교,



◇부석사명향완. 인 한국의 미를 창출했다. 특히 철제인사기미년부석사명향완, 종으로 만든 여래좌상, 석불좌상, 석조나한좌상, 나무로 만든 동자상, 김로동 등 다수의 불교문화재는 역발정적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불교미술 작품이 즐기치게 제작과 완성을 보여준다. 윤기석 기자

## 70여년전 금강산 ‘여행’

강릉박물관 사진첩 2권 공개... 사찰전경도 담아  
금강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920~30년대 촬영된 금강산의 명승지와 일장사 등 강원도의 옛 명소가 담긴 사진첩 2권이 공개돼 흥미를 끌고 있다. 강릉시립박물관이 공개한 사진첩은 지난 96년 금강산 8폭병풍과 함께 서울의 개인 소장가로부터 구입한 ‘전하무비 만이천봉 조선 금강산(天下無比 萬二千峰 朝鮮金剛山)’과 ‘강원도 명소구적(江原道 名所舊蹟)’... ‘금강산’은 1938년 경성(서울에서 발간된 것)으로 가로 23cm, 세로 16cm 크기의 51쪽 분량이며 금강산의 사찰전경



◇1930년대의 내금강산 소재 정양사 약 사진 모습. 한편 시립박물관은 24일부터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사진첩에 실린 60여점의 사진을 전시하는 한편 <강원의 옛 자취> 사진첩 2권권을 제작, 판매할 계획이다. 윤기석 기자

## 통일신라 금동보살입상 발견

김해지역서 처음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보살입상이 김해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월21일 김해시 진례면 달안리 일명 개동마을에서 마을 주민 김철수(39)씨가 돌밭을 하던 중 발견한 이 불상은 높이 12cm로 청동에서 금 도금을 하고 있으며, 보관에 불상이 새겨져 있어 관세음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서 감정중이며,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기석 기자



**연막 소독 살충기**

**CARNIVORE 2000**  
(길이 480mm, 높이 260mm, 폭 130mm, 중량 1.4kg)

**카니보 2000** 하나면 여름이 편안해진다.

모기 및 모든 해충으로부터 해~방!

- ◎ 사찰에 꼭 필요한 상품으로 대만족 확산!
- ◎ 방역, 소독 필요시 간편하게 사용가능 (어린이도 조작 가능)

농가, 축사, 여중, 정원, 아이들, 지하철, 병원, 화장실, 쓰레기장등 소독이 필요한 모든 곳의 전염성균예방

**특별보급가 ₩178,000** \* 3회 분할가능 \* 각종 신용카드 장기분할가능

※ 현금가 : ₩

해충퇴치기 (안내포시등) ₩28,000 \* 별도 판매 가능

◎ 연막소독기 구입시 해충퇴치기 무료 사은품 증정

보급처: 한마음 ☎ 051)865-1182 하나하나몰리 전국 어느곳이든 배달가능! ☎ 크로바서비스:080-007-1182

## 인사의 말씀

먼저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서도 대한불교 조계종 오봉산 석굴암 중창주이자 회주이신 超安堂 隆城大禪師의 영결식과 다비식에 참석하여 주신 제방 대덕스님 및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고 인사드리미 도리인줄 아오나 향망중에 우선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안대선사의 높으신 법력으로 출현하신 59과의 사리친견 및 49재 추모법회를 아래와 같이 동행함을 알려드리는 바 입니다.

불기 2542년 7월

**초안당 유성대선사 사리친견 및 49재 추모법회 안내**

일 시: 불기 2542년 8월 19일(음력 6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장 소: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 1번지 오봉산 석굴암

문의전화: (0351) 826-3573

봉선사 문도장 동행위원장 밀운 상좌(오봉산 석굴암 주지) 도일

## 스리랑카 국립팔리불교대학교 한국분교 학사과정 신입생모집

**-Buddhist and Pail University of Sri Lanka-**

“이제 많은 의회를 들어 유학을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아주 저렴한 학비로 세계적인 대학의 학문을 연구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부처님 제세 당시의 언어인 원전 팔리어와 불교영어, 상좌부 불교, 대승경전 등을 공부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대학에 많은 사부대중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은 세계대학 연합에 가입된 정규대학입니다. \*

● 모집안내

- 모집 인원: 주간50명 야간 50명 (주 3회 출석)
- \*원거리 통학생을 위해 통신강좌 실시(주 1회 출석)
- 수학 기간: 불교 DIPLOMA 및 학사학위과정 9학기 (불교영어포함)
- 입학 자격: ① 일반분자로서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 (수학능력시험과 무관하며 연령제한 없음) ② 조계종 및 여타종단의 법남 3년이상 승려는 학력제한없이 입학가능 \* 영외회화 가능자는 각종 장학 혜택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면제)
- 입학 전형: 면접 및 서류심사 (선착순 100명에 한함)
- 합격자 발표: 면접통과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특 전

- ① 위 DIPLOMA과정 및 학사학위과정 수료자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합격자는 DIPLOMA자격증과 학사학위 (B.A)를 취득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현지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M.A)에 100% 유학가능 (디프로마 및 학사과정 강의는 국내 서울·부산 강의실에서 각각 실시함)
- ② 재학생 현지 유학 (편입)가능 ③ 조계종 포교사 및 국제 포교사 자격 취득가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2동 62-388

###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한국분교

☎ 문의: 서울(서울 및 경기 거주자) 02)741-0496 부산(부산 및 경남·북 거주자) 051)642-6242